

27 요한복음: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예수님과 마귀 중 하나를 선택하라
성경말씀: 요8:12-30

요한복음의 총 주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요20:30-31)

주제 파악을 못하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

요3장,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요4장: 수가성의 여인. 영존하는 생명수

요5장: 베데스다 연못의 아픈 사람(39)

요6장: 나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

요한복음 7장, 장막절 의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내게로 와야 한다(7:37-38).

장막절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요한복음 8장에는 상반되는 두 개가 비교되면 나온다.

은혜와 율법(1-11), 빛과 어둠(12-20), 생명과 죽음(21-30), 자유와 속박(31-47) 등
지난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회개하는 여인을 용서하심, 간음 면허 준 것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

“나도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11)

오늘은 < >,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인생과 죽음 이야기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살고 있다.

사실 태어나는 날부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

나도 내 아내도, 같이 간 내 딸과 손자 손녀도 다 무덤에 갈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분열이 생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생기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생긴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둘째 사망: 하나님, 선, 빛이 거하는 데서 완전히 분리되어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 악한 자들과 영원히
거하는 것, 악, 어둠만 존재하는 데가 있다. 이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한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설계자, 설계대로 나오지 않으면 폐기한다. 대개는 불태운다.

하나님도 인간의 설계자, 설계대로 나오지 않은 폐기하신다.

사탄 마귀, 그의 졸개 마귀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폐기 된다. 그 장소가 지옥이다.

지옥은 본이니 선택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 천국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마10:28).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말 예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토마스 페인(1737-1809): 오늘날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진정한
상식이 되기까지는 선각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명제는 당연히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 진리를 이른바 ‘상식
(Common Sense)’으로 선포한 대표적인 선각자가 바로 토마스 페인이다.

죽음 앞에서 한 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계시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제발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소서. 아이러도 하나 내게 보내 주소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일 사탄 마귀에게 첩자가 하나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치인, 부귀영화 명예, 그러나 그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다.

아이작 왓츠(1674-1748), 수많은 찬송가 작사

오늘 부른 2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음의 순간에 내가 전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머리를 뒤로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평안하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빛과 어둠

주님의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12).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고 아닌 자는 어둠에 거한다.

어둠에 속하는 자들의 운명(21)

“나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임을 입증하였다.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막절에 나타나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선포하였다. ‘나를 믿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수를 얻어야 한다. 그 사건 이후 간음하는 여인 사건, 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는 자다.’ 선포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빵에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 대해 수군수군 대며 나를 믿지는 않는다. 결국 나와 내 말을 거부한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으려 다닐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이다. 이미 나와 너희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처음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

그러나 대다수 백성들이 이런 상태, 결국 그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은 매우 명확하게 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22절의 엉뚱한 질문 유대인들의 전통: 자살하면 지옥에서도 가장 어두운 데로 간다.

그런데 이들의 확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분명히 100% 천국, 그는 가장 어두운 천국, 그러니 당연히 그는 우리를 못 본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한다. 위대한 착각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영원무궁토록(계14:10-11).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생기는 근본 이유(23)

23절: 출생지가 다르다. 한 부류는 위에서 나고 다른 부류는 아래에서 난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절대 합쳐질 수가 없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다. 나는 아니다.

세상, 성경에는 여러 의미, 동물 세상, 식물 세상 등 좋은 세상

그러나 사도 요한의 복음서와 요한일서 등에 나오는 세상은 악한 세상 체제를 뜻한다.

거기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좋은 세상 아니다.

요일2:15-17

즉 너희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아니다.

즉 나와 너희는 서로 합쳐질 수 없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명백한 현실

물과 기름,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 섞으려야 섞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난 것과 아래에서 난 것을 합칠 수 없다.

어느 정도 떨어졌나? 영원무궁토록

그러면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는 하늘에서부터(3:7)

그러므로 그분의 영역으로 다시, 왕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요17:16).

구원받으면 두 세상에 살게 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세상 법, 경제 정치 문화 등, 어려움도 겪는다. 좋은 것도 누린다. 그럼에도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다.

사실 구원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엡2:6).

사도 바울의 고백(빌3:20), 우리의 생활권은 천국이다.

구체적인 이유(24)

구체적인 이유(24),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저 간음한 여인을 보라.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하였기에 나는 그녀를 은혜로 용서해 주었다.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한다. I am he. he는 이탤릭, 내가 I am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누구인가? I AM.

요한복음의 특징: 일곱 번의 I am. 1. 나는 생명의 빵이다(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3.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9). 4. 나는 선한 목자다(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26);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15:1,5) I am.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출3:13-14).

I AM THAT I AM.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I AM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였다.

즉 예수님의 말씀: 내가 바로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구체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 죄가 없다. 어둠이 없다, 악이 없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파묻힌 인생, 사탄, 마귀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 죄를 치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렘13:23)

하나님의 방법: 의의 전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혀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후5:17).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영원을 결정한다.

사대성인, 좋은 사람, 죄 없는 분, 깨끗한 사람,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 만물을 만드신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재림하는 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 해방의 자유를 주는 분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무상복지,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을 저주하는 분

병과 치료제

병과 치료제: 미국의 유명한 화학자 고든 엘리스(Gordon Alles),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개발 그런데 그는 62세에 당뇨병으로 죽었다. 참으로 아이러니

그가 자기 병을 앓았는지는 잘 모른다. (위키 백과 병을 몰랐다).

어쨌든 그는 인슐린이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인은 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음 예수님은 바로 죄의 치료제, 그 치료제를 알고 내게 적용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대화: 예수님이 정곡을 찌르는데도 그들은 다시 묻는다(25).

예수님의 동일한 대답: 나는 I Am이다.

그리고 26절: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나는 처음부터 바로 그 존재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27).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다(고전2:14).

어떻게 치료제를 얻는가?(28)

28절: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 뒤에야 내가 I Am임을 알 것이다. 또 내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다.

치료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영역이 바뀐 것을 아는가? 십자가로 가야 알 수 있다.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었다.

“다 이루었다”(19:30) 하실 때의 그분의 대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를 통해 우리의 주거지가 바뀌게 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30).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 주님께 나오기 바란다.

예수님의 약속(12)

예수님의 확언(21, 24)

십자가로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빛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을 선택하기 바란다.